

# 완주·전주 107개 상생발전방안 심의 마쳐 청명·한식맞아 산불 집중 단속

###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 완주군민협의회에 전달

전주·완주 통합전반투표가 상반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찬성단체의 활동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2일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총 14차례의 분과회의(7개분과 2회) 및 2차례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안별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상생발전방안에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된 △완주지역에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간 주요도로 확장 △군 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등이다.

또한 △농업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 규모의 농

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 보건소의 본소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의소·진료소 유치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주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위원회는 완주군에서 제안한 방안을 발전시켜 △초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평준화 등 양 시·군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발굴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민협의회와 논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통합과 관련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대통합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인정 결과와 관련된 그간 추진된 지역사회의 통합 논의와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군민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 전주시, 예찰 감시·드론 활용 소각행위 단속 등 추진

전주시가 성묘객을 중심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절기인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성묘객의 실화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주시 특별 단속반 등을 활용해 전주시 관내 묘지 19개소 주변을 집중 예찰 감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대청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운영하고 특히 이번 주말 휴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해당동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관리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하여 산불 주요원인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자와 7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주요 사례로, 중간관리자 교육에서는 변화하는 조직문화 속에서의 리더십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실무자 교육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10일 '안녕, 인권의 날'을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상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함께 존중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희성기자

## 전주시, '함께 존중' 하는 직장문화 조성 최선

###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전주시는 '함께 존중' 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2일과 오는 9일, 10일 등 총 3일에 걸쳐 6급 중간관리자와 7급 이하 실무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괴롭힘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정 내부에서부터 인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급마다 역할과 책임이 다른 점을 고려해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를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첫 교육에는 장중수 노무사(직장갑질 119 소속)가 강사로

초청돼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

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대응 절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책 등

/권희성 기자

## 전주시, 4월 한 달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반려견 2000마리 대상 지정 동물병원 38곳서 접종 가능

전주시는 4월 한 달간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광견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아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이

권장된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완료 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 동물병원은 38곳으로 전주시 누리

집(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희망 시 예견주들은 전주시내 가까운 동물병원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준비된 백신은 2,000마리 분량이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비는 평소 2만 원 내외이지만 사업 기간 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약 5,000원 정도의 접종시술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07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의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사람의 경우 주로 개에게 물려 감염되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면서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 전북환경청, 염산 탱크로리 고무라이닝 검사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염산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34대를 대상으로 '고무라이닝 검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무라이닝'은 탱크로리 내부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고무를 코팅하는 작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팅이 손상될 경우, 화학물질이 새어나올 위험이 커진다.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해당 검사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31대 중 4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1대에서는 고무 코팅이 갈라지는 심각한 손상이 확인돼 즉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작년 사업 이후 운송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북환경청은 올해도 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소속 염산 탱크로리이며, 신청은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63-839-5218)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전북환경청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 비상 방재장비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장비함은 순천-완주고속도로(북남원 IC, 동전주 IC, 오수휴게소 상행) 및 광주-대구고속도로(남원지사) 등 4곳에 설치됐으며, 흡착포, 보호복, 방독면 등 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비치돼 있다.

조경철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염산 탱크로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동부(廣通府)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